

포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로 돌아온 선비같은 과학자의 기억할만한 순간들

글 | 심재율 전 조선일보 기자 / <이광형 카이스트의 시간> 저자

이광형 KAIST 총장은 선비같은 인물이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창의력이 뛰어나고 새 일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달성해서, 한국의 벤처기업을 일으킨 제자들을 양성한 교수이자 과학자로 평가한다. 과거의 선비들이 후학을 양성해 국가를 운영하는 한 축이었던 것처럼, 이광형 총장의 손에서 1세대 벤처기업의 쟁쟁한 인물들이 양성됐다.

그래서일까, 업적만 보면 이 총장을 고명한 선비처럼 활달하면서도 사람의 기를 누르는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가까이서 본 이광형 총장은 그 반대다. 조용하고 섬세하고 조심스럽다. 마치 포도나무를 연상케 한다. 포도나무는 세콰이어처럼 위풍당당하지도 않고, 소나무처럼 고고하지도 않고, 은행나무처럼 시선을 끌지도 않는다. 포도나무가 위대한 까닭은 자신의 몸을 겨우 지탱할 만큼 튀지 않게 가늘면서도 풍성한 열매를 한껏 맺는다는 점이다.

물론 이광형 총장이 젊은 교수 시절부터 이룩해 온 일에는 KAIST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 서남표 전 총장, 장순홍 전 부총장은 물론이고 수많은 교수와 학생들이 KAIST가 한국 벤처의 산실이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 퍼즐 속에서 이광형이라는 인물이 빠져도 KAIST가 지금과 같은 모습일지는 의문이다.



scene #1

필자가 이 총장을 처음 만난 날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오래됐을 뿐 아니라, 취재원과 재치가 넘치는 젊은 KAIST 교수로서 조우했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994년 필자가 과학기자로 외국 연수를 떠날 기회가

왔다. 프랑스 언어를 전공한 필자는 프랑스를 선택했다. 과학기술+문화를 융합하는 학과를 고르려 했지만, 이상하게 연결되지 않았다. 이때 이광형 교수는 자신이 유학했던 프랑스 리옹 인사(INSA) 대학을 소개했다. 이광형 교수의 프랑스 스승인 파브렐 교수는 필자에게 한 실험실을 소개했지만, 이제와 고백하건대 부끄럽게도 필자는 매우 불성실하고 예의 없이 굴다가 1년 만에 그냥 돌아왔다.

그런데 후에 이광형 교수는 “프랑스 유학 때 가장 나에게 용기를 준 사람은 학과의 한 아줌마 행정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한국인 유학생이 거의 없던 시절, 프랑스 말을 유창하게 하지도 못하는 동양 학생은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한다. 프랑스 학생 서너 명에게 노트를 빌려서 꺾맞춰서 정리하고, 남들이 다 놀러 가는 주말에도 연구실을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학과 행정실의 기계식 타자기의 휠이 얽혔을 때 한국인 유학생은 이리저리 만지다가 고쳐줬다. 그 모습을 본 프랑스 아줌마 행정원은 이렇게 한마디 던졌다.

“천재네!!” (Il est doué)

이 말이 두고두고 그에게 큰 용기와 자신감을 줬다. 이 총장은 “TGV도 아니고 로켓도 아니고 그 어떤 프랑스의 과학기술보다도 이 말 한마디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자신감으로 충전한 한국 학생은 그때부터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사소한 일상들이 모여서 인류에 공헌하는 인재와 과학기술이 탄생한다. 필자는 이러한 ‘결정적 순간’의 중요성을 이광형 총장의 프랑스 유학 시절 일화를 듣고서야 깨달았다. 작은 일도 허투루 지나치지 않고 멀리 보는 선비들의 조심스러움이 연상되는 일화다.

scene #2

이광형 총장은 교수 시절, 정문술 전 미래산업 회장으로 부터 두 차례에 걸쳐 515억 원의 기부금을 유치한 바 있다. 2001년, 그는 첫 번째 기부한 300억 원으로 IT와 BT를 융합한 ‘바이오및뇌공학과’를 설립했다. 겉으로 보면

순탄한 과정으로 보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가시밭길이었다. 학과를 만들겠다는 젊은 교수의 주장에 안팎으로 반대가 들어왔다. 융합학과 설립부터 익숙한 일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기부금만으로 학문 사이의 두꺼운 벽을 허물고 서로 다른 분야 간 협력을 끌어낼 수 있겠냐는 우려였다.

걱정과는 달리 바이오및뇌공학과는 성공적으로 KAIST에 안착해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이광형 총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013년에는 정문술미래전략대학원을 설립하고 대학원장을 맡았다. 당시 이 총장은 대학원장으로서 책임자였다. 나이도 적지 않은 데다 국제협력처장, 교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으니 대학원이 확실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자리를 지켜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대학원이 본궤도에 오르자마자, 대학원장 직책을



2021년 3월 8일 개최된 KAIST 제17대 총장 취임식에서 '전진의 타고'를 하고 있는 이광형 신임 총장. 이 총장은 미래 50년을 위한 KAIST 신문화 전략인 'QAIST'를 발표하고 세계적인 가치를 선도하여 창출하는 대학으로 이끌 것을 다짐했다.

젊은 후배 교수에게 넘겨줬다. 모두가 놀란 ‘사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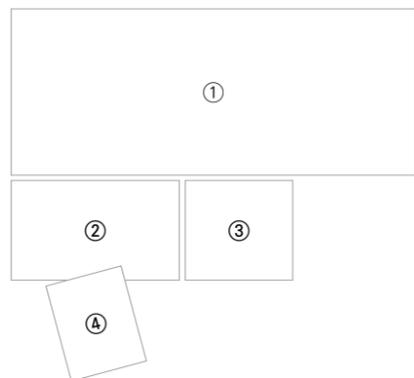
“더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변할지 모를까 두려웠다.” 이 총장은 당시의 결정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웠지만 필요한 일이었다고 회고한다. 아마 정문술 회장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KAIST에 기부한 광경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느낀 바가 있었을 것이다. 정문술 회장이 전 재산을 KAIST에 기부함으로써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듯, 이 총장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후배 과학기술인을 위한 공간을 내어준 셈이다. 마치 후학들을 위해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에 서원을 세운 선비들처럼.

scene #3

이 총장과 만남에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거꾸로 보는 TV’다. 그의 연구실 한쪽에는 뒤집힌 TV가 있다. 겉으로 보면 그저 사물을 새롭게 보아야 한다는 다짐을 상기시키는 인테리어 아이디어로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 속

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교무처장을 하던 시절, 이 총장은 수많은 교수들의 하소연과 의견을 듣고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했다. 어느 교무처장 자리가 그러하듯, 이 총장에게도 교내 구성원의 앞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력이 주어졌다. 한편으로는 갈등을 봉합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이지만 실상은 여러 사람의 원성을 살 수도 있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시절이었다.



- ①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이자 교학부총장으로 활동하던 시절의 이광형 총장. 그의 사무실에는 언제나 '거꾸로 뒤집은 TV'가 있었다.
- ② 1993년 KAIST 전산학과 퍼지컴퓨터 개발 설명회에서 발표중인 이광형 총장. 프랑스 유학 시절의 경험은 이 총장의 연구활동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 ③ 2017년, 신성철 전 총장과 면담중인 이광형 현 총장. 신성철 전 총장은 이광형 현 총장의 연구관과 교육관을 믿고 지지해준 든든한 우군이였다. 신 총장은 KAIST 최초로 후임 총장인 이 총장의 취임식에 참여해 축사를 전하기도 했다.
- ④ 2020년 5월 발간된 이광형 총장의 삶과 연구 여정을 담은 도서, <이광형 퀴스트의 시간>. 이 총장의 동료와 제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엮어 KAIST의 혁신과 변화를 일구어 낸 이 총장의 고뇌와 분투를 그려냈다. © 김영사

이 총장은 교무처장을 지내면서 자신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학내의 다양한 건의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 권력을 행사하게 되자, 자신이 어느 순간부터 목이 뻣뻣해지면서 '안됩니다'라는 말을 되풀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총장은 그런 습관이 더 이어지면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 두려움을 느꼈다. 권력에 안주한 나머지 '창의성'이라는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을까 걱정된 것이다.

이 총장은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기로 마음먹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사물을 거꾸로 봐서 '안정과 정체'를 극복하고자 했다. TV를 거꾸로 뒤집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힘과 권한이 강해질수록 이를 얼마나 통제하기 어려운지를 생각한다면 결코 가벼운 재치가 아니다. 뒤집힌 TV는 권력을 경계하고 수신을 게을리하지 않던 선비들의 지혜를 상징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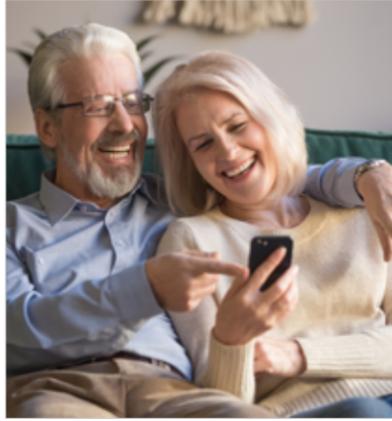
scene #4

2021년 3월 8일 이광형 총장이 취임했다. 취임식 장면은 유튜브에 올라왔다. 그는 직접 총장으로서 할 일을 PPT를 띄워놓고 하나씩 차분하게 설명했다. MIT에 버금가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포스트 인공지능을 대비하겠다, 과학문화를 발전시키겠다, 새로운 질문을 하라, 10% 공부를 덜 시키겠다, 실패연구소를 만들겠다는 몇 가지 목표를 세웠다.

이 중 돋보이는 목표가 '기술사업화를 민영화해서 한 해 수입을 1000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이었다. 다른 목표는 달성했는지 아닌지 정량화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 해 1000억 원 기술사업화 수입을 올리겠다는 목표는 다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목표가 있어 세간의 평가에 자신을 고스란히 내놓는 일이다.

이 총장이 세간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내세운 1000억 원의 기술사업화 수입이라는 목표에는 더 큰 뜻이 있다. 1000억 원은 그저 KAIST라는 기관의 수입이 아니라, 한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KAIST가 위험성 있는 연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데 중요한 중춧돈이 될 것이다. KAIST의 연구 방향과 운영방법이 한국의 이공계 대학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총장은 과학기술 고등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도전을 한 셈이다.

선비의 특징은 무엇일까? 예나 지금이나 이상적인 선비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매일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성찰하는 자세는 탐구와 분석으로 이어진다. 부족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더욱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남의 단점에 너그러워질 수 있다. 매일 새로워지려는 자세가 연구개발에 연결되면 그것이 바로 혁신이 된다. 여기에 끊임없는 노력을 추가하면 '혁신'을 '현실'로 끌어내는 에너지가 된다. KAIST가 5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이 총장이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KAISTian



+ 다른 사람들과 디지털 게임을 하는 중장년층, 웰빙 지수 높아

KAIST 문화기술대학원 도영임 교수팀의 연구로 중장년층이 다른 사람과 함께 디지털 게임을 하는 것이 웰빙 지수, 사회적 지지 만족도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연구는 중장년층 게이머들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더보기



+ 조현병의 새로운 원인을 규명했다

KAIST 의과대학원 이정호 교수 연구팀이 미국 스탠리 의학 연구원(Stanley Medical Research Institute) 김상현 박사팀과 공동연구를 통해 후천적으로 발생한 뇌 특이적 체성 유전변이가 조현병(舊 정신분열증) 발병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규명했다고 3월 11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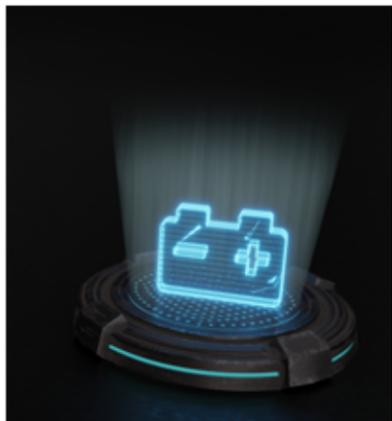
>> 더보기



+ 탄소중립 인공 광합성 기술 개발

KAIST 생명과학과 조병관 교수 연구팀이 기후 변화의 주된 요인인 C1 가스를 고부가가치 바이오 화학물질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광 나노입자가 빛을 받으면 내놓는 전자를 미생물이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미생물-광 나노입자 인공광합성 시스템을 개발했다.

>> 더보기



+ 고용량 차세대 배터리 수명 향상 소재 개발

KAIST 신소재공학과 조은애 교수 연구팀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 양극재와 비교해 20% 이상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서 안정적인 고용량 리튬 과잉 양극 소재를 개발했다. 이 연구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고민거리인 주행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더보기



+ 김지희 교수, 소득 불평등 설명 경제학 이론으로 루카스 상 수상

KAIST 기술경영학부의 김지희 교수가 2021년 로버트 루카스 주니어 상(Robert E. Lucas Jr. Prize)의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김지희 교수는 2018년 10월에 발표한 정치경제학저널(Journal of Political Economy) 논문의 기여를 크게 인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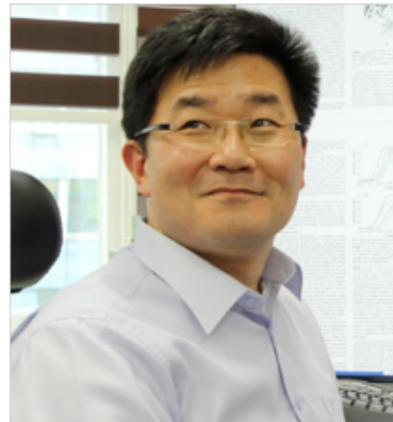
>> 더보기



+ 경영대학 박광우 교수, 한국증권학회 신임 회장 취임

KAIST 경영대학 박광우 금융전문대학원장이 한국증권학회 제45차 정기총회에서 제38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박광우 한국증권학회 신임 회장은 여의도 IFCC에서 금융위원회, 서울시, KAIST가 공동으로 개설한 디지털 금융전문대학원의 디지털금융MBA책임교수를 맡고 있다.

>> 더보기



+ 화학과 백무현 교수, 2021 포스코청암상 수상

포스코청암재단은 2월 26일 이사회를 열어 올해 포스코청암상 수상자 중 한 명으로 과학상에 백무현 KAIST 화학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백무현 교수는 전이금속 촉매를 매개로 일어나는 화학반응의 반응 원리를 밝히고, 더 나은 촉매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를 정립했다.

>> 더보기



+ 수리과학과 김재경 교수, 기초과학연구원 수리생물학 분야 신규 연구그룹 이끈다

KAIST 수리과학과 김재경 교수가 3월 1일자로 기초과학연구원(IBS)의 수리 및 계산과학 연구단의 3번째 CI(Chief Investigator)로 임명됐다. 김재경 교수는 수리생물학 분야의 유망주로 주목받는 연구자다.

>> 더보기



+ 90대 노부부, KAIST에 200억 원 상당 부동산 기부

90대 노부부가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KAIST에 기부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삼성 브러쉬 장성환(92) 회장과 안하옥(90) 부부로 이들은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부동산을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써달라며 쾌척했다.

>> 더보기



+ 이광형 제17대 총장 취임식 개최

이광형 KAIST 제17대 총장이 3월 8일 오후 2시 대전 본원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미래 50년을 위한 KAIST 신문화 조성을 선포했다. 이 총장의 이날 취임식은 KAIST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됐다.

>> 더보기



+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KIMES 2021) 참가

KAIST가 3월 18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4일간 열린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이하, KIMES 2021)에 참가했다. KIMES 2021은 세계 선진 기업들의 창의적인 의료 기술이 집결, 소개되는 전시회다.

>> 더보기